

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참석 결과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2.6.28(화)~6.30(목) / 포르투갈 폰타델가다
- (참석자) 36개 CPC, 8개 NGO 등 약 350명
(한국대표단) 해양수산부 심수빈 사무관, 원양협회 백상진 주임, 센터 양재걸 전문관
- (주요의제) 열대다랑어(가다랑어·황다랑어·눈다랑어) 보존관리조치 논의

□ 회의 주요내용

1. 눈다랑어 TAC

- 논의 배경
 - '21년 자원평가 결과 호전 후, 연례회의에서 TAC 증가가 제안되었으나 자원상태 불확실성을 이유(아프리카CPC, 미국 등)로 미합의
 - 연안개도국 어획 할당 증가를 위해 금년에 다시 TAC 증가가 제안*
- * (2022년 TAC) 62,000톤 (일본, 서아프리카) 70,000톤 (EU) 75,000톤 (중미) 77,500톤
- 논의 경과
 - 과학위 의장은 자원평가 미래 전망치*는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
 - * 자원상태가 2028년/2034년에 Kobe 플롯 녹색영역에 있을 가능성 : TAC 70,000톤일 경우 81%/82%, TAC 75,000톤일 경우 70%/64%
 - 한국, 일본, 미국, 남아공, 브라질은 자원상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수준의 TAC(70,000톤) 수립을 주장

- EU는 자원상태 전망치 70%도 ICCAT 타 어종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이고, 사전예방적 접근은 과학위 평가에서 이미 고려되었음을 언급
- 중미CPC들은 위원회 자원관리 목표는 전망치 50% 이상이고, 관리자 등의 역할은 극단적인 위험회피가 아닌 위험관리를 강조
- 서아프리카CPC들은 연안개도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위해 TAC 75,000톤도 수용 가능함을 언급

○ 논의 결과

- 차기 자원평가('24년/'25년) 결과에 따라 TAC를 조정하도록 하는 문구 (일본 제안)*를 추가하고 TAC 70,000톤과 75,000톤 모두를 옵션으로 하여 추후 논의 계속하기로 함

* 1) '24년/'25년 자원평가 결과 검토 시 '28년 자원상태 전망치 70%를 기준으로 하여,
 2) '28/'34년 자원상태 전망치가 70%/60% 이상이 되도록 TAC를 증감
 3) 70% 수치는 타 어종 대비 높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향후 본 수치 재검토 가능

2. 눈다랑어 어획 할당

○ 논의 배경

- 권고 16-01까지 가나를 제외한 연안개도국들은 어획한도가 미수립되어 TAC 초과('17~'19년)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
- 권고 19-02(잠정 조치)에서 주요CPC 어획한도 감축 및 신규 설정
-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할당을 고려하는 새로운 어획 할당안이 제안

<제안서 주요내용 >

구분	주요내용
일본	61,500톤 초과량은 연안개도CPC들에게 할당, 7만톤 초과량은 비례적 할당
EU	16-01 3항 CPC들은 3항을 시작점으로 논의, 연안개도CPC들을 위한 할당 설정
서아프리카	어획량 큰 CPC들의 어획한도 감축, 연안개도CPC들의 어획한도 증가
중미	'16-'19년 평균어획량 1,000-3,500톤인 CPC들의 어획한도 증가

○ 논의 경과

- EU와 중국은 19-02에서 감축된 어획한도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, 16-01 3항 CPC들의 어획한도 논의 시작점은 16-01 수치가 되어야 함을 주장
- 일본은 TAC가 증가할 경우,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언급
- 연안개도국들은 조업기회 불공평이 계속되어 왔고, 연안개도국들의 어업개발을 위한 공평한 할당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
- 미국, 캐나다, 영국은 소규모 어획국의 어업개발 고려 필요를 언급

○ 논의 결과

- 의장안에서 각 제안서 요소들을 괄호로 두고 추후 논의 계속

3. 어획한도 이월 및 전배

○ 논의 배경

- 현재 이월과 전배는 16-01 3항 CPC*에게만 허용
- * (7개) 일본, EU, 대만, 중국, 가나, 한국, 필리핀
- 연안개도국들은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어획한도 추가 할당을 위해 미소진 어획한도의 이월과 전배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

< 제안서 주요내용 >

구분	주요내용
EU	(이월) 16-01 3항 CPC만 기본 어획한도 10%까지 허용
서아프리카	(이월) 자원상태가 녹색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금지 (전배) 같은 그룹 내 또는 아래 그룹 CPC에게만 가능
중미	(이월) ① 예외적 상황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② 어획한도 10% 이상 미소진 CPC만 가능 ③ 이월한도 : 500톤 또는 CPC 어획한도 25% ④ 이월 요청서 회람 후 10일 내 반대 CPC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

○ 논의 경과

- 일본은 이월과 전배는 어획 할당 합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언급하고, 이월 비율은 최근 권고들에서 계속적으로 감축되어 추가적인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표명하였고, 한국, 중국, 대만도 이에 동의
- 일본과 EU는 연안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해서 연안개도국은 새롭게 할당받은 어획한도를 전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함을 언급
- 중미CPC들은 연안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해서 조업할 계획이 없을 경우 할당을 부여해서는 안되고, 미소진 어획한도 전배 금지를 주장

○ 논의 결과

- 의장안에서 각 제안서 요소들을 괄호로 두고 추후 논의 계속

4. 기타 사항

○ FAD(어류군집장치) 금어기

- 일본은 TAC가 증가할 경우, 치어 어획량 유지를 위해 FAD 금어기를 3개월로 연장해야 하고, FAD 세트(투망) 수 제한 필요를 주장
- EU는 눈다랑어, 특히 치어 어획의 책임이 그동안 선망에게만 과도하게 가해져 왔고, 치어 목표 어업(서부 채낚기, 손낚시)과 눈다랑어 어획 비중이 가장 큰 연승에 대한 규제 필요를 주장
- 중미CPC들은 금어기 연장과 세트 수 제한은 수용 불가함을 언급

○ MCS(감시·감독·통제) 조치*

- * 제안서 주요내용 : 지역옵서버 프로그램(ROP) 부활, 연승선 입항 전재(20%) 실시, 연승선 옵서버 승선을 상향(20%) 등
- TAC 및 어획한도 할당 합의 후 논의하기로 함

5. 향후 논의 계획

○ 의장안 준비

- 제안서 주요 요소 및 본 회의 의견들을 괄호로 두는 의장안을 준비
- 의장안은 특정 CPC의 입장이 아닌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

○ 제2차 회기간 회의 개최

- 10.13(목)에 제2차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여 연례회의에 제출할 제안서에 대한 추가 논의 진행